

35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10~11장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태양은 그 자리에 거의 중일토록(약 24 시간)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과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텍은 아모리 족속의 여러 왕과 함께 군대를 모으고 기브온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쳤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 아모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말이 끝나자 태양은 그 자리에 거의 종일토록(약 24시간)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군사들을 모두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가나안 북쪽 지방에 살던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온 족속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메롬 물가에 나왔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마치 해변의 모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모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들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태훈이의 두 생각을 읽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태훈이는 4학년 때 구원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태훈이는 구원받지 못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엄마에게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 화낼 거야.
엄마 화내면 무섭잖아.
관히 말을 해서 혼나는 것보다는 나중
에 말하는 것이 좋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말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태훈이의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태훈이가 하나님을 믿고 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전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4)



알아볼까요



정복된 이스라엘 땅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각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parents' response.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eacher's response.